



◀ 고양지부 사무실 앞.
 지난 2002년 7월 24일 개최된 현판식 장면.
 좌측부터 고양지부 최홍식·최호성 운영위원,
 김윤영 지부장, 이광재·이창래 운영위원

회원들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경기 고양지부

취재 : 정재은

경기 고양지부(김윤영 지부장, 51세)는 각종 사업 추진과 행정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회원 농가에 편익을 제공한다. 더불어 회원들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부를 통해 고양지역 양돈농가에 관급 백

신을 공급하고 있는데, 두수에 비례한 효율적인 배분과 신속한 제공으로 질병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전기히터 기구 등 필요한 경우 구매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 협조 아래 축산분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분뇨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개최로 뛰어난 사양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매년 3회 정도의 단합대회를 통해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단합해 나가고 있으며, 친목계 등을 통해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지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고양지부는 협회 회비 납부와 TV홍보비 모금, 각종 행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여러 조사업무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 경기 고양지부 김윤영 지부장

▶ 좌측부터 고양지부의 신정호 사무장, 유재문 회원, 이형주 회원, 김윤영 지부장, 최원문 회원과 부인, 최홍식 운영위원, 송종근 부지부장, 김재영 운영위원



더불어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식회 개최를 통해 돼지고기 소비홍보 및 양돈산업 위상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지역 양돈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고양지부

고양지역 양돈인들의 권익향상 및 친목도모와 양돈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위해 1975년 10월 30일 고양지부가 설립되었고, 1979년 2월 17일 승인되었다.

고양지역에서 60여 농가(100두 이상 사육)가 6만5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47명이 정회원으로 전체 사육두수의 80% 수준인 5만8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아울러 준회원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양돈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했던 원로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축적된 원로회원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

현재 김윤영 지부장(1997년 3월 지부장 취임), 송종근 부지부장, 황차성 감사, 김기원 총무와 각 읍·면의 이광재·최호성·이창래·고영재·최홍식·김재영 운영위원 등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진과 함께 신정호 사무장이 양돈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과 연계한 백신공급과 각종 사업 추진으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월례회의 개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단합대회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고양지부는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이덕규 고양축협조합장, 이봉운 고양시의회 부의장)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양지역 양돈산업 발전의 중심체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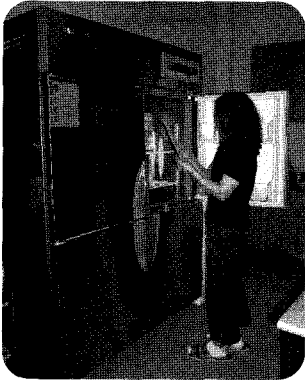
한편 고양지부는 이처럼 유익한 활동과 함께 임원진의 적극적인 소개로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지부를 통한 관급백신 공급 및 필요시 구매사업 전개

고양지부에서는 백신 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고양지역 양돈농가에 관급 백신을 공급하



▲ 고양지부의 신정호 사무장.



▲ 고양지부에서는 백신 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고양지역 양돈농가에 관급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고 있다. 돈열, 일본 뇌염, TGE Rota 등 고양시에서 관급백신이 나오면 농가에 신속히 연락을 취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 구청, 동사무소 등 여러



▲ 지난 2003년 8월 26일 개최된 월례회의의 장면.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개최로 뛰어난 사양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 김윤영 지부장(좌측)과 김기원 총무. 고양지부에서는 월례회의 때 깜짝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지부에 전화로 많이 한 회원, 지부를 많이 방문한 회원 등을 선정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편 회원들의 소속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친목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기 때문에 제품이 신선할 뿐 아니라 사육두수에 비례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겨울 주변 지역에서 돈열이 발생하자 2003년 1월에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소독수 온도 25~30°C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기히터 기구를 단체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양지역은 도시개발로 인해 분뇨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고양지부에서는 고양시의 협조 아래 축산분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양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운반이 동거리에 상관없이 고양시 전역에서 고정된 저렴한 가격(톤당 5,000원 절약)으로 분뇨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기적인 월례회의와 친목대회로 단합 이끌어내

매월 24일 전후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벤치마킹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필요시에 따라 세미나를 통해 우수한 사양관리 및 질병차단 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매년 2월이나 3월에는 1박 2일로 지리산 등반대회를 하고, 6월에는 야유회, 10월이나 11월에는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1년에 3번 정도 친목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지리산 등반대회의 경우 깨끗한 공기와 고로쇠 수액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친목 행사로 양돈을 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회원들간에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화합해 나가고 있다.

한편 회원들의 소속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친목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월례회의 때 지부운영을 위해 회비로 2만원씩을 걷고 있으며, 이것 외에 따로 2만원씩을 걷어 친목계를 하고 있다. 정시에 지부사무실에 도착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아 2명을 선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부 정기총회 개최시에는 회원들에게 돈가스용으로 진공 포장된 돼지고기 5kg씩을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사와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들의 동참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 무료시식회 외 다양한 행사 전개 및 참여

고양지부는 무료시식회 및 불우이웃돕기 등 유익한 행사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15일에 일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였다. 1,320kg의 돼지고기 전·후지 등 수출부위를 이용하여 돈가스, 탕수육, 장조림, 불고기 등의 요리와 더불어 계란 2만개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회원 및 부인들의 자원 봉사로 성공적인 행사 진행이 가능하였으며, 3,000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과 불균형 소비문화 개선에 기여하였다.

한편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기증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회원들간에도 수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밖에 협회에서 추



▲ 회원들은 지난 2003년 10월 23일에 설악산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1년에 3번 정도 개최되는 친목 행사로 양돈을 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회원들간에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화합해 나가고 있다.



▲ 지난 2003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을 꽃돼지 축제'에 참석한 모습. 고양지부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우측부터 이광재 운영위원, 김윤영 지부장, 유재문 회원과 부인, 신정호 사무장(가운데), 좌측부터 김기원 총무 부인, 이영희 회원, 김윤영 지부장 부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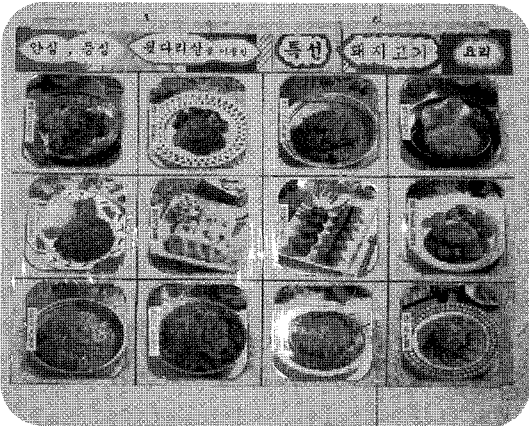
진하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을 꽃돼지 축제, 축산물브랜드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추후 돼지고기 직판장 활성화할 계획

과거에 고양지부는 돼지고기 직판장을 운영하며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양돈농가 경영안



▲ 지난 2003년 11월 15일에 일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고양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3,000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과 불균형 소비문화 개선에 기여하였다.



▲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의 사진을 게시판에 게재해 놓았다.

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고양시내 신도시에 직판장 매장을 확보해 놓았다. 아울러 앞으로는 우수한 품질의 돼지고기 공급이 가능하고, 산뜻한 진열, 포장, 인테리어로 구성된 돼지고기 직판장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새롭게 준비중에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감으로써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생산자인 양돈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실정에 맞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김윤영 지부장을 비롯한 고양지부 임원진은 축산업등록제,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된 법 등이 실정에 맞게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회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도가 시행될 때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송종근 부지부장(양돈자조금 대의원)은 “자조금이 양돈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며, “TV광고시 내용과 모델 선정 등에 따라 광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을 홍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홍식 운영위원은 축산시설 및 기자재의 경우에도 경운기처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양돈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정확한 현장파악과 조사를 토대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각종 질병 발생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가축을 생매장하는 장면 등의 보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지부장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지부회의와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유쾌하고 유익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질병 발생여부에 따라 양돈업 존폐가 결정되는 만큼 질병 관련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해 나가겠다.”고 지부 운영계획을 밝혔다. **양돈**